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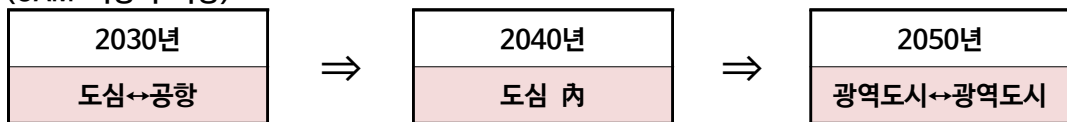


## 해외 동향

### □ 2050년, 전 세계 '하늘 나는 자동차' 4억5천만 명 이용

- 도심항공모빌리티(Urban Air Mobility, UAM)의 시장규모, 2040년 1조5000억 달러(한화 약 1,830조원)로 전망

(UAM 시장의 확장)



- 2050년 전 세계 이용객수가 4억4,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
- 항공택시의 성장가능성이 높은 도시로 서울과 도쿄, 베이징, 상하이, 델리가 선정
- UAM의 이동수단인 개인용비행체(PAV) 대부분 수직이착륙(eVTOL) 방식
- 전 세계 114개 업체에서 133개의 eVTOL 모델을 개발 중이고, 이 중 35개 모델은 이미 시험비행 단계(2019.12. 기준)
- 에어버스는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공항과 도심 간 이동에 '시티에어버스'를 활용할 계획

### □ NASA, 전동화 비행체 'X-57' 개발 막바지

- '맥스웰(Maxwell)'이란 별칭을 붙인 X-57은 NASA가 20년간 개발 중인 전기 비행기
- 이 테크남(Tecnam)社 쌍발기 P2006T 경비행기 기반으로 4기통 엔진은 전기모터 12개로 교체, 각 날개에도 60kW 전기모터 2개 더 장착
- 기존 항공기보다 소음이 적고 최대 50% 효율적이며 오염물질 배출 없음



## □ '에어버스·보잉' 양대 항공사 생산 추락...글로벌 공급망 붕괴

- 佛 에어버스社, A320 생산 1/3 줄이기로 결정  
[A320 생산 월 60대→ 40대, A350 생산 월 10대→ 6대]
- 美 보잉社, 5월 제한적으로 재개 계획이었던 B737Max 생산이 시애틀과 사우스캐롤라이나 조립공장 폐쇄로 일시 중단 됨
- 전세계 항공사들이 보유 중인 항공기의 약 3분의2가 운항 중단 상태
- 항공기 제작 감축은 항공기 부품 국제 공급망에 심각한 타격을 주어 대규모 실업을 유발할 우려가 큼

## □ 루프트한자, 항공기 40대 매각기로... "수요회복 쉽게 안 이뤄진다"

- 獨 루프트한자, 신주발행·전환사채 등을 통해 최대 24억 유로(약 3조 1870억 원)규모의 긴급자금 조달 추진
- 코로나19 사태로 현재 90% 이상의 항공기 운항을 중지한 상태
- 대형여객기 '에어버스A340' 등 18대와 중형여객기 '에어버스A320' 11대 등 항공기 40대 매각
- 루프트한자 그룹의 저가항공(LCC) 자회사 저먼윙스도 영업 종료
- 전체 직원 13만5000명 가운데 8만7000명을 대상으로 조업 단축 실시



## 국내 동향

## □ 해군 차세대 해상초계기 P-8A포세이돈, 2023년 도입예정

- 美 보잉社, 미 해군과 P-8A포세이돈 해상초계기 생산(15억 달러 규모) 계약 체결  
美 해군용 8대, 韓 해군용 6대, 뉴질랜드 공군용 4대 포함. 공동구매 방식으로 진행
- P-8A, 미 해군의 차기 해상초계기로 해상에서 대잠전, 대함전, 기뢰전 등 다양한 임무 수행하는 해상작전 특화 고정익 항공기



P-8A(포세이돈)

- 737NG 기반
- 터보팬 엔진 장착
- AN/APY-10 레이더, 고해상도 TV 및 열영상 카메라 등 고도의 정찰능력 탑재
- 별칭: 포세이돈(바다의 신)

## □ **항공사 신규채용 ‘올스톱’ ... “코로나19 타격 오래갈 것**

- 국제선 운항 90%이상 중단, 유희인력 발생과 구조조정 문제 직면
- 올해 7월 보잉787-9 1호기 도입 예정인 에어프레미아 유일하게 신규 채용 (100명 채용에 약 1만 명 서류접수. 100:1 경쟁률)
- 이스타항공, 직원 300여 명 정리하고, 보유 항공기 23대 중 10대 반납
- 대한항공 기내식 협력업체 직원 중 인천 근무자 1800명 중 1000명 권고사직, 800명 중 300여 명은 휴직
-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관광인프라 재구축에 상당 시간 소요 예상, 항공업계 정상화는 올해 4분기 예상



## **관내 동향**

### □ **KAI, 美 공군에 FA-50 4~8대 임대**

- 미 공군 항공전투사령부, 2024년 도입 예정인 보잉 T-7A 대체기로 FA-50 낙점(힐우드항공 통해 5년 간 FA-50 4~8대 임차 논의)
- KAI가 힐우드항공에 FA-50 8대를 팔고 이를 힐우드항공이 미 공군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
- 지난해 KAI 매출액(3조 1천억 원) 중 43.91%인 1조 3700억 원이 기체부품 부문에서 발생(이는 전년 대비 36.6% 증가한 수준으로 기체 부품 의존도 높아지고 있음)
- KAI 지난해 매출액(3조 1천억 원) 중 국내 발생 매출은 1조4300억 원으로(전체 비중의 45.9%) 이는 국방비 증액에 따른 방위사업청 발주량 증가와 관련 됨

### □ **하이즈항공, 보잉(Boeing)B787 기종 부품 납품 계약**

- 하이즈항공은 BTC(Boeing Tianjin Composites Co. Ltd.)\*와 보잉(Boeing) B787 기종 부품 납품 계약을 체결(계약기간 2030년 12월 31일까지)

\*BTC: 보잉의 중국항공공업기업과 설립한 회사. B737,777,787 복합재 부품 생산

- 계약금액 106억1849만원, 이는 2018년 매출 대비 23.1% 규모
- 하이즈항공은 지난 1월 보잉의 말레이시아 자회사 ACM과 1천379억 원의 계획을 체결한 바 있음

□ **아스트, 자회사 ‘에이에스티지’ 1500억 원 규모 계약 체결**

- 싱가포르 `ST Engineering Aerospace Ltd.`의 에어버스 A320/A321 민항공기·화물수송기 개조 프로젝트 부품을 제작·납품 계약
  - \* ST Engineering Aerospace Ltd.: 항공정비사업(MRO)서비스 제공을 주요사업으로 영위. 보잉과 에어버스 두 회사와 모두 협업하는 유일한 회사
- 계약 규모는 1억 2090만 달러(약 1494억 원)로 최근 아스트의 연결 기준 매출액 대비 103%이며, 계약 기간은 2037년까지
- 이번 수주 계약은 아스트의 사업 부문을 MRO사업으로 영역 확장한다는 데 의의가 있음

□ **‘사천에어로스페이스 에듀케이션파크’ 조성**

-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‘2020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’ 선정
- 사천시와 KAI, 공군 등 민·관·군이 협력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2024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180억 원을 들여 항공과 교육을 테마로 다양한 공간 조성(국비 90억, 도비27억, 시비63억 원)
- 사남면 소재 **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**을 리뉴얼해 사천 에어쇼의 인기 프로그램인 공군 비행시뮬레이션, 문워크 증력체험 등의 콘텐츠를 상시 운영할 계획
- 한국항공우주산업(KAI)이 운영하는 **에이비에이션센터**에 스카이 다이빙 시설 등을 도입하고, 미래인적자원 양성을 위해 완제기 생산시설을 견학하는 활성화 사업과 ‘항공부품설계 청년아카데미’를 운영

작성일	2020. 04. 16.(목)	보고일	2020. 04. 16.(목)
부서명	항공경제국 우주항공과	담당자	박예지(055-831-3470)